

“입학생 소모 유학시대 연다”

대진대 중국캠퍼스(DUCC) 신입생 파견 설명회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5층 강당에서 대진대 국제협력대학 주관으로 중국 캠퍼스(DUCC) 신입생 파견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5층 강당에서 대진대 국제협력대학 주관으로 중국 캠퍼스(DUCC) 신입생 파견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6일 사회·자연·예술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7일 인문·공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중 합작으로 설립된 중국

캠퍼스에서의 유학생활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진대 국제협력대학은 “중국캠퍼스 신입생 파견을 위한 설명회

안내책자에서 중국캠퍼스는 대진대 입학생 모두의 해외유학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정을 겪고 있으며, 국가, 지역, 개인간의 경쟁력 강화와 특성화에 몰두하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캠퍼스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당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시대적 특성, 미래변화를 감안한 바람직한 교육 시스템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20년 후 한·중·일 3국은 세계의 중심세력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신입생 여러분은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DUCC는 이를 위한 작지만 위대한 첫발이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캠퍼스(DUCC)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중국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한·중 합작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 ▶해외유학 생활을 통한 자아발견 및 분교에서의 학습 동기 유발 등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

함께 해요, 포천교육 2005

포천교육청 신입·전임교사연수 경기도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지난달 30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신입·전임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함께 해요, 포천교육 2005’를 모토로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포천교육 안내 및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연수는 사전공연으로 포천초등학교 현악 5중주 연주가 마련되었으며 개최식과 장학사소개로 이어졌다.

이날 연수는 ▶박정규 학과과장의 ‘비전 포천교육’ ▶박정규 원로 장학관의 ‘교직 사명을 위한 새로운 출발’ ▶이영현 전 의정부 청룡초 교장의 ‘바람직한 교사상’ 등의 강의 및 특강이 이어졌으며 ▶초·중등 인사관리 세부계획 설명 ▶교직원 공동사색 운영 안내 ▶즐거움 교실, 행복한 학교 원고내용 소개 ▶관내 교원단체 안내 ▶소감문 제출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신입·전임교사연수에서 박정규 학과과장이 비전 포천교육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대진대 교수협의회장 농성돌입 선언문



정달열 회장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

대진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를 바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그에 따른 당위 및 대의가 곧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배적 의식이요 열망이라는 공분모의 극적인 확인을 바탕으로 <학교 바로 세우기>를 선언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말과 글로 그 당위성과 대의명분을 거듭 밝히며 불철주야 경영진들의 이성적인 각성을 촉구해왔다. 공동체의 질서와 소통의 원리는 말과 글에 있기에 우리는 그 질서와 원리에 충실한 지극히 온당한 방법과 정도를 견지해 왔던 것이다. 대저 언어에 의존한 보편적인 질서의 소통원리가 막히고 통하지 않는 사회란 상상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가 곧 우리의 목전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라. 이성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교수협의회회 비판을 마치 보복이라고 하듯 초법적으로 그 수장의 목을 비틀어 죄는 일에 급급하는가 하면, 교직원들의 월급을 2년째 동결시키고, 성문법으로 엄존하는 정년안정보장제를 제쳐두고 어느 날 느닷없이 이사회회의 지시명령이라는 변칙을 적용하여 해당교수들에게 추책을 채워 정상적인 승진을 가로막는 해프닝을 벌이던 것이 아니냐. 자존심 하나로 사는 교수들의 긍지를 짓밟고 치욕을 안겨주는 것으로 학교 경영의 소임을 일삼는 그들의 비이성성을 어디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말과 글이 무용한 그들의 반이성성을 무엇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그들의 마비된 이성과 양심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대진의 큰 빛을 남기고 화천하신 설립자께서 하늘에 좌정하시실 삼년거상의 등신제(尊神祭)를 마치 차 치르기도 전에 때를 만난 듯 학교를 장악한 일부 경영진들의 작금의 작태를 돌이

켜보면 너무도 자명해지는 일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지하는 바, 법인 사무국 및 일부 이사는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광분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는 대학교의 손익 분기점이 학생 5천 명만을 모르지 않는다. 그 분기점에 입학하더라도 한 해 건물 한 톨을 세울 만큼의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여러 대학의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잉여금이 다 어디로 갔는가. 낱씨가 15도를 웃도는데도 계속 고가의 연료를 소비하며 난방을 가동하는가 하면, 학교 전체 예산의 균형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의 각종 공사와 그에 관련된 수의계약, 각종 교육 기자재 구입의 수의 계약, 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사문화, 폐기처분 상태인 교수 연구실의 보안시설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는 사실들을 무엇으로 해명하려는가. 행여 소수 경영진들의 탐욕을 위한 잔치에 남비되지 않았다면, 물가에 연동한 정상적인 급여 인상을 이유로 학생등록금은 계속 인상했으면서도 교직원의 급여가 계속 동결된 연유는 무엇이며, 학교 교육과 발전에 결정적인 구슬력을 갖는 교수 충원율이 훨씬 미달하는 신입교수 채용은 물론,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일부 학과 편중의 왜곡 선발은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이에 우리는 학교를 안으로 좁혀야 중병에 빠지게 한 책임을 온갖 술수와 기만책으로 호도하는 경영진의 마비된 이성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지성의 무관심 또한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언어형식을 지양하고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다. 이에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호소하는 바, 화천하신 설립자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사태를 굽어 살펴실진대 과연 누가 옳고 그르다고 하실 것인지, 엄정한 도심으로 돌아가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그 소리를 바로 듣는 귀가 열릴 때까지 교수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장인 본인은 꺼져가는 <큰 진리의 빛>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한 몸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무한 농성 돌입을 선언한다.

아빠 어렸을 적에 (24)

봄놀이

봄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해로되어 시냇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면 아이들은 벌써부터 여름 준비에 바쁘다. 동네를 관통하는 38선 개울을 막고 물을 가두어 일명, 수영장을 만드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대장인 장재는 해마다 그러했듯이 급년도 출석부를 만들어 아이들이 수영장을 만드는 일에 부역 나올 것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삼형제와 참체네 사형제, 돈체네 형제, 그리고 제환네 형제...

학교를 다녀오면 마루에 가방을 뺐가치고 우리들은 바로 개울로 향하였습니다. 날마다 개울에 나와 물을 캐고, 캔 돌로 독을 쌓아 개울을 막고, 못자리에 사용하던 폐비닐을 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개울에서의 부역은 누가 시키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어른들이 시켰다면 벌써 도망가거나 그만두고 말았을걸요. 아랫말 사는 아이들이 올라와 뜰사리를 까자고 하지만 우리는 거절하였습니다. 엄마들은 빨래터에 앉아 물이 흐르며 빨래를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야단이지만 그런 야단쯤은 우리에게겐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어둠이 내리 깔리는 해거름까지 우리들은 날을 거르지 않고 물을 나르고 개울을 막았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나온 호미가 물모래에 닳고 닳아서 흰 칼날처럼 보였지요. 늦대야가 땀땀 돌에 부딪히며 징소리를 내고 가끔은 내내너 쪼개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채 여름이 되기 전, 오월 중순이 지나면 우리들은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땅에 금을 긋고 하는 놀이(일명:가이상)인 삼국잡기와 날리리잡기, 오징어잡기와 팽공잡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삼국잡기는 땅 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놓고 고무려, 백제, 신라로 구분하여 노는 놀이입니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똑같은 수로 나누는데 자국의 땅에 물을 하나 놓고 서로 밀고 당기며 사 람을 끌어 오면 자국 사람이 되는 게임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남의 영토에 들어가 물을 밟으면 지는 게임이지요. 영토 외의 바다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갯쟁이(외 발뺌기)로 뛰어 다녀야 하고 서

로 밀어 양발이 땅에 닿으면 죽는답니다. 날리리잡기는 모양을 마음대로 그리고, 오징어잡기는 오징어 모양으로, 팽공잡기는 팽공 모양으로 그리고 놀며 모양은 다르지만 대체로 노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미국과 소련으로 편을 나누어 계급제가 붙어인 소련잡기는 우리들의 단합된 놀이입니다. 종이에 두 나라의 나라 이름과 계급을 써서 잘 섞어 던져 주워서 편을 나누지요, 서로 상대편을 만나 손으로 채어 같은 계급은 무승부, 낮은 계급은 전사하고 높은 계급이 이기는데 국가를 소지한 사람이 체이면 지는 게임입니다. 낮은 계급이나 국가를 소지한 사람은 계속 도망을 다녀야만 하지요. 남작한 돌은 주위 한 쪽에 세우고 멀리 금을 그은 곳에서 던져 맞추고, 발등 위어나 사타구니에 끼어 엉금엉금 걸어가 맞추는 비석치기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강릉치기는 마당 가운데 강통에 물을 넣어 찌그린 강통을 숨였다 나오며 차는 놀이로 술래잡기와 비슷했다. 강통이 귀하여 학교에서 다녀오는 길에 누가 강통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집까지 갖고 옵니다. 종이로 만든 딱지치는 큰 운동이 됩니다. 금방 밥을 먹고 나와도 딱지치기 몇 판이면 배가 꺼져 힘이 없습니다. 유리구슬로는 벽 아래 조그만 구덩이를 파고 굴리거나 던져서 맞

김순진의 연재 수필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추면 구슬을 팔 수 있는 구멍 치기를 하며 놀기도 했다. 유리구슬은 잘 깨지므로 손을 가슴 위에서 던져 맞추는 일명 깔베기는 금지된 기술입니다. 조그만 손톱만한 사금파리나 남작한 돌을 주워 땅에 동그란 금을 긋고 손톱으로 세 번 핏겨 들어오면 내 땅이 되는 땅따먹기, 땅 위에 금을 여러 칸 고고 물을 던져 깨뜨림으로 차고 나오는 봉차들방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인기 있는 놀이입니다. 돌을 봉에 던지면 봉사가 되어 눈을 감고 금을 밟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방에 던지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일반 게임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게임입니다. (계속)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포천시 개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추진위원 위촉식이 마련됐다.

포천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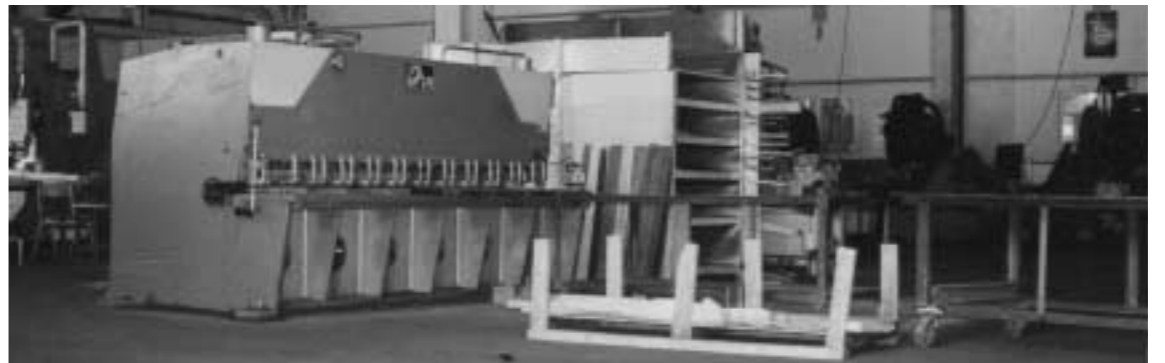
각 지방의 전래민속을 발굴 보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KBS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16개 시·도와 이북5도에서 각 1팀씩

모두 21개팀이 출전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또 개막 하루 전인 10월 10일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속예술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 1팀에 1천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되는 것을 비롯해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이 시상된다. 포천시는 행사 참가인원만 3천명에 달하며 관중은 연인원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추진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된 추진위원은 ▶중앙대 민속학과 김선홍 교수 ▶용인대 무용학과 이병욱 교수 ▶강릉대 국문학과 장정룡 교수 ▶부산대 국악과 최현 교수 ▶한국국악협회 정인삼 부이사장 ▶오세철 포천지부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김대동 미래자연도시연구소장 등 8명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의 위촉장 전달했다. 추진위원들은 축제 준비과정과 향후 일정을 협의한 뒤 개최장소인 포천종합운동장을 둘러봤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 · 산 · 품 · 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